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형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611호 현대불교
2007년 1월 17일(음력 11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5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나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또 자리를 하면서 서로가 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 위해 자리를 갖았습니다. 지금 시ết말로 공부하는 과정을 시(詩)로 한마디 읊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들으시고 또 이날까지 가르쳐드린, 가르쳐왔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자기발전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승상하던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나와 남이 같이 두루 나투는 이름 없는 이름이여,

해산봉은 화산 터져 두루불이 진동하여 이름 없는 이름이 그대로 여여하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말도 아니요, 누가 지어주어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살피지 않아, 자기가 스스로 한 티끌만도 못하고 깨알쪽만도 못하는데... 다 실은 뜻입니다. '또 한 말 다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읊은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첫번째,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인공(主人)에 나라, 맡겨 나라, 이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결국은 그때에 진짜 관(觀)해야 됩니다. 편안해졌을 때,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대답해봐.' '당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편안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것이 공부라면 이것은 영 발전이 없습니다. 좌선을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묵안하고 '이만하면 죽는 것을...' 한다면 그걸로써 죽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공(空)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발견했을 때, 내 대답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는 앞서의 그 습을 다 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없어. 그래서 일 단계는 다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발견해가지고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체험하고 실험을 통해서 생활을 해보면서 다시 공부하는 데는 역시 각오(各悟)를 하면서 다시 끌리면서, 안으로만... 네 뜻이니 네 뜻이니 하고 남 볼 거물이 없습니다.

아니, 볼 거물이 없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 잘못을 말할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바보가 아니냐?" 이러겠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나와 남이 더불어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두루 같이'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모든 게 두루, '두루 같이 죽은 이름이여.' 했습니다. 더불어 들이 아님을 알면서 체험하면서, 남한테 잘못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거물이 없이 안으로 끌려서 안에도 놓고 말을 하면서, 안에도 놓으면서 말을 했어도 말을 한 사이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럼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발견해도 만약에 그 습이 앞을 가린다면 자꾸 내가 잘났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이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다면 그 '깨달았다'는 거기에서 그만 더 진전을 못하고, 더 깨달을 못하고, 두루 물리가 터지지 못한 채 그냥 멈춰버리고 말고 미(迷)해 집니다. 해산을 해서 어린애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떻게 어른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육조 스님이 심육년 동안을 그렇게, 깨달아서 바라때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달마 대사 역시 면벽을 했고, 깨달았어도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같이 두루 나투는 방법을, 들이 아니게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정열적으로 확고히 알리고 했던 거죠.

생활이 불법이자 진리이자 과학이기도 합니다. 안에서 생각하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니까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달아가고도 내가 '나'라는 게 없는 공부가 바로 진짜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승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죠. 자기는 시자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 가르치는 자로서, 자기는 공부를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봐야 하고 자기는 바로 행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데는 역시 각오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앞서 그 '같이 나투고 두루불어, 이름 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그런 것

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돈오(頓悟)나 점수(漸修)나 둘 흐르는 데 불지 않듯이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과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정말 오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들과 보이는 세계의 생명들이 들이 아닌 까닭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두 번에서 여섯 번을 다섯을 낳을 수도 있고 한 명을 낳을 수도 있지만 저 짐승들이나 저 바다의 모든 생명들이 낳는 알 수효를 보십시오.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한생각에 그렇게 수효가 많은, 모습 없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산 사람들이 감당해나갈지, 그것도 모르는데다가 함부로

“ 일 단계는 다 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게 발견해가지고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다!

”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귀신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짓을 안 한다면 귀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는 그거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시는 않았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을 하겠습니다. 깨달았어도 타의에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산기도를 간다 또는 법당에서 부처님을 찾는다 또는 무엇을 바깥에서 찾는다 할 때, 관세음보살이든지 뭐든지, 이름은 상관 없습니다. 바깥에서 찾지만 하면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여건이 있죠. 바깥에서 찾는 데서 오는 게 있고, 유전성으로 오는 게 있고,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쇼크를 받아서 오는 게 있습

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하시렵니까, 이겁니다. 바깥에서 찾는 것은 그렇게 타의에서와 가지고 "애, 난 아무개야." "난 아무개야." "난 네 할아버지야." "난 네 아버지야." "나는 아무 때 죽은 누구야." 이라고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미쳐 죽을, 환장해 죽을 노릇이죠. 내가 여러분을 접하게 하면서 수 없이 겪어왔던 일입니다.

너무 지겨워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딱 뒤집어서 말합니다. '이건 바로 너니까 너한테다가 너가 장난을 하는 거니까, 이런 장난하는 그 이름들이 너를 떠보기 위해서 이름을 이겨다 저겨다 들고 나오는 거다. 바로 그것이 타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다. 바로! 이렇게 얘길 하죠. 그러면 다행히 그걸 들으면 즉시 낮고 그걸 안 들고 고집을 부리면 낮지도 않죠. 타의에서 온 거는 참 빼빼빼빼빼빼 이런 말 해 줘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더 멧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 든지 말든지 무조건 심부름을 해줘야 하는 일장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같이 들면 쉬울 것을, 들지 않을 때는 같이 들지 못해서 쉽지가 않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하는 데에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살면서 여러 자녀들을 기르시고 또는 부모들을 모시고 살면서 병에 휘둘리는 게 아주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야, 내가 얼마까지 남한테 이익을 봤느냐?" 하고 항상 반문합니다. 남한테 말하기 이전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서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말보다도 행이 그렇게 됐느냐? 말로는 이론적인 말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행 한 번 그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참작해보셨습니까? 한번 웃기를 여미고, 우리가 기복으로 나갈 때엔 이득이 없고, 내 몸에도 이득이 없고 내 가정에도 이득이 없고, 나라에도 이득이 없고, 사회에도 이득이 없어요. 이런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앞장을 서야 할 지도자들이 과학자들 뒤에 서서 따라가지도 못한 채 근근이 있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 생활로서 "어차피 선은 어려우니까 그냥 생활불교로서 나가자."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禪)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입니다! 참선은 생활이지, 불법이 따로 있고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와선(臥禪)이니, 입선(立禪)이니, 무선(坐禪)이니, 이런 것이 이름이지 그 이름조차 없어야 합니다. 뭐 정법(正法)이니, 사법(邪法)이니, 이단이니 이런 것도 전체 몰락 다 버리고 자유권을 얻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자유권을 얻는다면 계율을 지키는 사람보다도, 지킨다고 지키는 사람보다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다 버린 사람이 계율을 더 잘 지켜요. 그리고 행을, 그대로 행을 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득이 있네 없네, 이득이 있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러겠지마는 그럼 뭇 때문에 이렇하고 공부하려고 애를 씀니까? 나오지 않는 거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나는 그전부터 천당에 가려고, 아니 그런 데 가려고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했죠. 구더기도 구더기 살림이 있고, 파리도 파리 살림이 있고, 또 개구리는 개구리 살림이 있고, 부처는 부처 살림이 있고, 살림은 크고 작을 뿐이고 미(微)하고 미(微)할 뿐이지 똑같아요. 그것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걸. 그래서 나는 살고 죽는 데는 절대 개의지 않았습다. 또 무슨 승천을 한다 천당엘 간다, 잘된다 못된다, 나를 잘해주시오 못해주시오 이걸 떠나서 말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지금 어디를 보고서 이렇게 걷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몸 하나를 크게 생각하면 은하계라고도 볼 수 있고 작게 생각하면 어느 흙성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석존(釋尊)께서 새벽 새벽을 보시고 깨달았다고 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해가 같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도 저 별을 볼 때, 별 하나 나 하나라고 할 때, 하나뿐이 아니라 속에 배를 가리키시며 은하계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면서. 그런데 선장은 누구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면 구멍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한생각을 잘못하면 구멍이에서 빠져

26면으로 계속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음질, 선풍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 스피커 YM-520

- ◇ 소리공양 종목 ◇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대자암 시방당 선원 가행정진 1년 결사 모집공고

1년 결사 기간
2007년 음력 4월 15일 부터
2008년 음력 3월 15일 까지

- ◆ 참가자격 : 비구승 및 거사 (사찰염의 방부비 없음)
- ◆ 모집인원 : 10명
- ◆ 정진방법 : 수면시간 23시~01시 까지 2시간 (수면시간 외 시간은 용맹정진과 동일함)
- ◆ 접수마감 : 2007년 음력 2월 15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계룡산 갑사 대자암
시방당선원 회주 영 파
전화 041)857-5880

보통콩 63일 작업 정성 신비의 약콩 금단화



당뇨, 비만, 변비, 과음, 숙취 등에 특히 좋다는 **검정콩 금단화**는 자궁질환 등의 부인병과 위장병, 고혈압 등 성인병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

우나무와 소나무 액을 채취한 후 한달간 발효시켜 사용하므로 옷의 독성은 남아 있지 않다고, 그 밖의 재료인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 등을 섞어 생즙을 낸 후 옷진 송진과 다시 섞어 액즙을 만든다. 그 다음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액즙에 실어일주일 담가 두었다가 꺼내어 20여일을 말린다.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달 이월해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까지 무려 63일이나 소요 된다. 콩은 서리태를 사용하고 꿀도 반드시 토종꿀만을 구해 사용한다.

◆ 체험사례

- ① 혈액순환이 안되고, 손과 발이 냉했었는데 금단화 20정도 먹고 온 몸이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 광주 최숙자 님
- ② 발 뒤꿈치가 피가 나고 갈라졌었는데 7.8개월 금단화를 먹고 난뒤 갈라짐이 없어지고 맨질 맨질해졌습니다. - 평창동 김미자 님

상담문의 02)3437-8282

순모 손뜨개 모자, 목도리

한울한울 직접손으로 뜨게질한 어머니정성이 고이깃든 고급 순모 손뜨개모자, 목도리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코저 합니다.

겨울 나시는 스님 선물용으로도 좋고 목도리는 일반 어른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 소재:wool 100%
- 색상:회색
- 길이:70cm X 높이 15cm
- 손뜨개모자 목도리 1set구입시 58,000원
- 2set구입시 106,000원
- 목도리만 구입시 38,000원

도매구입 문의

■ 제조 판매원: **한새울 송복점**
TEL 051)644-6624
H·P 010-4579-6636
http://www.hansaeol.com

입금계좌

기업은행 096-045672-02-016
새마을금고 1315-09-003257-4
(예금주 : 배재호)